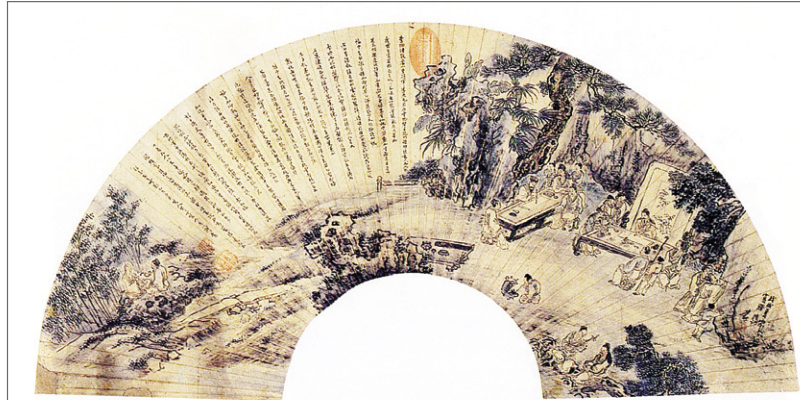


#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18 서원아집도

## 시·서·화 일치에 유·불·도 합일의 희구 담아

조선 후기 정조(재위 1776~1800)는 문예 부흥기이다. 이 시기를 대표한 인물로는 사상에 다산 정약옹, 문학에 연암 박지원이 있다면 예술에는 단원 김홍도가 있을 것이다. '무소불능(無所不能)의 신필(神筆) 또는 '가장 조선적인 화가'로도 불리는 그는 전대에 완성된 회화적 전통을 토대로 자신만의 독자적 화풍을 완성했다. 하지만 그가 단순히 개인의 천재적인 능력만으로 자수성가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그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후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스승 표암 강세황(1712~1791)이 있었다. 강세황은 조선 후기 예림(藝林)의 총수로 시·서·화에 뛰어났던 문인화가였다. 그는 멀리 청나라 황제에게 인장받을 정도의 명필로 명망이 높았고 시문은 고풍스러웠으며, 회화에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 강세황의 문집에는 소년 김홍도가 그의 집에 출입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강세황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의 회고가 담겨있다. 이후 이들의 인연은 서로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통할 정도(知己에 이르게 되는데 사제 간의 신분과 나이의 벽을 넘은 아름다운 교유로 발전했던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의 부채그림으로 제작된 '서원아집도'는 1777년 강세황이 화기(書記)를 쓰고 이듬해에 김홍도가 그림을 그려 완성한 작품이다. '서원아집도'는 중국에서 처음 그려지기 시작한 소재로 복속의 사대부 왕선(王詵)이 자신의 별서 정원인 '서원(西園)'에서 소식, 미불, 이공린을 비롯해 당시의 유명한 시인과 묵객이 모여 시를 짓고 글씨를 쓰고 담판하는 아회(雅會)를 담은 그림이다. 또한 모임에 참석했던 미불이 당시의 정황을 묘사한 도기(圖記)를 쓰고, 화가 이공린이 그림에 담았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김홍도, '서원아집도', 선면, 1778년(34세), 지본담채, 27.0x80.3cm, 국립중앙박물관.

하는 현인이기도 하다. 때문에 문예와 종교적 대표성을 지닌 이들의 만남은 당대 사적인 모임의 성격 을 넘어 '문예일치와 유불도 합일의 경지에 대한 희구'를 담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이들이 교류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한자리에 모여 서원아집을 가지고 그림이나 기록을 남겼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어 이들의 모임이 후대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일화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서원아집도'는 소식을 중심으로 한 문예집단의 이상향을 담고 있는 동시에 이들의 사상은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쳐 그림으로 꾸준히

제작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중앙의 여백에는 차동이 화보에서 차트를 달고 있다. 다른 '서원아집도'에서는 좀처럼 보이는 않던 차동이 등장한 것이다. 소식은 생활이 어렵던 시절에도 친구에게 차 씨를 구해 재배할 정도로 차를 즐겼고 여러 편의 다시(茶詩)를 남기기도 했다. 김홍도는 소식이 차를 좋아했던 정황을 잘 포착해 그림에 담은 것이다.

강세황은 물과 불의 음양이치를 본 따 태극도(太極圖)라는 화로를 특수 제작할 만큼 차를 애호했고 그의 문하에 있던 김홍도 역시 강세황과의 교류를 통해 차를 알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서원아집의 한 가운데에 차를 달이는 화로를 둔 것이라. 결국 그림속의 인물들이 추구했던 시·서·화(詩書畫) 일치와 유·불·도(儒佛道) 통합은 탈속의 운치와 함께 차가 있어 더욱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림 밖에 있는 강세황과 김홍도의 만남은 옛사람의 뜻을 자신의 삶에서 재현해 그림을 제작하도록 했다. 결국 '선면 서원아집도'는 단순히 중국의 고사 인물화를 그린 사실을 넘어 조선 문인이 추구했던 사상을 드러내고 김홍도와 강세황의 교류를 담아낸 생생한 증거가 됐다.

이랑 lang312@hanmail.net 동아사이버문화연구센터 연구원

## 박재완 기자의 불교이야기

16 만장(萬章)



말로는 다 할 수 없어서일까. 만장이 법구를 따라가고 있었다. 소리 없이 통곡하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람에 필릭이고, 글자마다 글정거리는 눈물은 금방이라도 눈길 위에 떨어질 듯 했다. 백양사는 온통 하얗고, 법구는 그 하얀 눈길을 걷고 있었다.

2003년 12월 19일 백양사. 입적하신 서운 스님의 영결식이 끝나고 다비장까지 법구 이운을 하고 있었다. 생사(生死)가 돌이 아니라고 하나 법구를 따라 걷는 불자들의 마음속엔 오직 떠나간 이의 시간들로 가득했다. 무거운 발자국 위를 걷는 고개 숙인 얼굴들. 그 얼굴 위에서 슬픔의 문장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말로 떠나가는 이와 이야기를 하고, 임으로는 부를 수 없는 이름을 부르며 스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말로는 따라갈 수 없어서일까. 만장이 법구를 따라가고 있었다.

## 옛 관화의 세계

### 황제가 조개를 좋아하다 문제기합(文帝嗜蛤)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불심이 강했던 문제가 조개를 먹다가 조갯살 속에서 나투신 관음보살상을 보고 희유한 일에 대해 유정 스님에게 그 이치를 물어보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석유정(釋惟政)은 당나라 문제 때 스님으로 속성이 주씨이며 평원사람이다. 문제로부터 스승의 대우를 받았다. 문제는 불도에 귀의한 독실한 불자였다. 그는 틈만 있으면 부처님 기도 예불을 올리고 큰스님을 청해 설법을 듣기도 했다. 그리고 내전에 불당을 따로 마련해, 관음상을 모신 뒤 조석으로 예불과 기도를 올렸다.

본문의 내용을 풀이하면 '문제는 불교에 귀의한 후 다른 어육은 다 금할 수 있었으나 유독 조개만은 좋아했다. 어느 날 수라상에 조개도 입을 열지 않는 조개가 있었다. 황제는 기이하게 생각하고 곧 향을 사르고 기도하니 조개가 열리면서 관음보살을 나타내 광명을 발하는 것이 하도 신기해 종남산 유정 선사를 모셔왔다. '스님, 관음상이 조개 속에서 나왔습니다. 조개 속에서 진주가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불상이 나온다는 말은 금시초문인데 관음보살상이 나왔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했다. '이는

32상으로 응화신을 나타내 증생을 교화하시는 관음보살의 화신입니다.' 32상 가운데 조개신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32응신의 화신이라고 합니까?' 불신은 백역화신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백역화신 가운데 어찌 조개로 나타는 화신인들 없겠습니까?' '관음경'에 보면 관음보살이 각각 그의 형상을 응해 제도시킬 자는 각각 그 형상을 나타내 설법하신다고 했는데 이 조개는 비록 관음상은 나타냈으나 설법이 없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폐하께서는 이 조개에서 관음상이 나온 것을 아무 사람이나 볼 수 있는 흔한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희유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나는 깊이 믿고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이미 설법 듣는 일을 끝마쳤습니까?' 이후 문제는 천하의 사원에 조서를 내려 각기 관음상을 건립하게 했다.'

증생을 자비로 구원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의 다양한 모습이 문제와의 인연담으로 표현되고 있다.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의 인연들이 불보살님께서 증생을 교화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베풀어지는 것임을 새삼 느껴야 할 대목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학박물관 관장)

## 시가 있는 도량

신발

할아버지 신발 벗으셨네  
 둥근 주먹나무 우듬지에 슬쩍 신발을 벗어 놓으셨네  
 햇살 고운 바람 불면 두동실 하늘길 탈 것만 같네

평생 걸어온 발길이 허공을 짚자는 심사네 허공으로 뜨기 전 첫발을 띄워보자는 심사네

키 낮은 주먹나무 공손히 떠받친 힘으로 깨끗이 마르겠네

할아버지 신발 벗어두고 어디 가셨나

-이계열, 시집 <우리공>



고관학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문제기합(文帝嗜蛤) 편. 불암사 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 x 18.0cm

##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웨이셀타올



삼베웨이셀타올 - 각 6,000원

###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 타월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헴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맑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삼베웨이셀타올 세안법

- ① 삼베웨이셀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 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③ 삼베사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④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⑤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확장이 잘 됩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력제품

- 용 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 질 - 헴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샤워,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실업 (한국산)

###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헴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의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명숙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향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용 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 질 - 헴프사, 죽사
- 용 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목실청소 등
- 규 격 - 30cm x 30cm(3) / 30cmx50cm(대)

## 위생·항균·향독 삼베수세미



삼베수세미 - 각 4,000원

## 건포마사지용 삼베사워타올



삼베사워타올 - 각 15,000원

- 용 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 질 - 헴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샤워,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전신용 (30cm x 130cm)



### '건포, 습포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등골까지 피부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마사지방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 습포 마사지를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사지가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사지가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사지를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않아야합니다.



###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겨울어질 의심은 배려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갑니다.
- 땀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갑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 현불샵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웨이셀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사워타올 + 삼베향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들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